

【코로나19】<1월22일> 고치현 지사 부탁말씀

- 올해 들어 고치현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고, 의료제공체제도 좋아졌습니다. 주민 여러분, 사업자 여러분께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주신 덕분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
- 다만 전국 11개 지역이 긴급사태선언 상황이며 고치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.
- 지금 긴장을 늦추면 고치현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.
- 이에 당분간 계속해서 회식 등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「회식」은 구체적으로 「4인 이하」, 「2시간 이내」로 부탁드립니다.
- 최근 고치현에서는 다른 지역에 방문한 뒤 감염된 사례가 눈에 띕니다.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 등 감염 확산 지역 방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먼저 감염 확산 지역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방문하더라도 개인방역에 철저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방문 지역의 지사가 발표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된 지역에서는 「시간대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외출 자제」를 부탁하고 있으니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다른 지역 방문을 삼가거나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- 고치현에서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2021년 1월 25일

고치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장
(지사) 하마다 세이지